

원점메아리

INHA TECHNICAL COLLEGE NEWSLETTER

99TH
WINTER



지식스토리

탐간:매버릭의 마하 10, 현실에서는?
데님의 시작이 작업복이라고?

돌보기로 보는 학과

신소재공학부 완벽 비교분석



GO!

인리와 하니가 간다규

유탑 마리나 호텔&리조트 부총지배인
최윤택 선배님을 만나다

+

공모전의 강자들

인하 브이로그 몽골 봉사활동



인하공업전문대학
INHA TECHNICAL COLLEGE

CONTENTS

02 목차	겨울을 맞으며
04 인하의 겨울	원점문화제
08 인이와 하니가 간다규	유탐 마리나 호텔&리조트 부총지배인 최윤태 동문
12 지식스토리	항공기계공학과·패션디자인학과
16 인하브이로그	몽골 해외봉사활동
20 공모전의 강자들	실내건축학과·컴퓨터정보과·컴퓨터시스템과
24 닳은 학과 다른 학과	화학생명공학과·재료공학과
28 우리들의 소원나무	2022 가장 즐거웠던 기억
32 졸업작품전시회	건축학과·산업디자인학과
34 대학뉴스	새로운 학교소식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네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천년 백설이 되고 싶다

겨울사랑/ 문정희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의 허락 없이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점문화제

소리 질러, 인하의 젊음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3년의 휴식기를 갖고 인하의 축제, 원점문화제가 열렸어. 5호관 앞 부스는 축제의 주축이 되어 분위기를 살렸지. 탁구공 넣기 게임, 오래 매달리기, 팔찌 만들기, 젠가 게임, 플리마켓, 나만의 향수 만들기, 퍼스널컬러 찾기, '친구 어때, 여기 어때?' 등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 특히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이라 연일 북적였다구.

학과와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은 뜨거운 호응을 받았어. 호텔경영학과는 실제로 호텔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고 칵테일 바에서 기호에 맞는 음료를 제공했어. 항공운항과의 모의 비행은 전공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실제 비행 절차를 따라 입시생을 포함해 많은 방문객이 찾았지.

27일에는 동문의 밤 행사가 열렸어. 전문 셰프를 초빙해 많은 학생들과 동문, 교수님들이 높은 퀄리티의 바비큐를 즐기며 친목을 다졌어. 이를 동안 호미들, 10cm, V.O.S, DJ주디 등 연예인들이 방문해 축제의 흥을 돋았고, 우리 학우들의 장기자랑 대회에서는 학우들이 마음껏 끼를 펼쳤어. 장기자랑 1위의 영광은 관광경영학과 박승철 학우가 차지했어.

입안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던 푸드트럭, 귀가 호강한 공연장, 유용한 정보가 가득했던 취업 박람회, 그리고 폭넓은 경험이 가능했던 학과 프로그램, 축제의 활기가 느껴졌던 부스. 오랜만에 맞이한만큼 긴장과 설렘 속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대성공!





인이하니 인터뷰를
영상으로 즐기세요

친구들! 여행 좋아해?
여수 유토피아 호텔&리조
트의 부총지배인, 최윤태 선
배님을 만나러 함께 가볼래?

렛츠고 렛츠고!

인이와 하니의 좌충우돌 인터뷰!

인이와 하니가 간다규

관광경영과09
최윤태 동문



품격있는 호텔리어

호텔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유토피아 호텔&리조트 부총지배인
최윤태 동문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여수에 있는 유토피아 호텔&리조트에서 부총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최윤태입니다. 인하공전 관광경영과에 입학한 것이 09학번이니 벌써 십 년이 훌쩍 넘었네요.

13년도에 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의 신라호텔 F&B 부서가 저의 첫 근무지였습니다. 신라호텔에서 삼성 회장단 서비스인 드림팀에서 일하며 서비스 업무의 기초부터 대통령 의전 서비스까지 많은 분야를 배웠고, 그 후 제주 켄싱턴 호텔(그랜드 조선), 제주 히든클리프 호텔, 서울 시청 플라자호텔을 거쳐 현재 여수에 있는 유토피아 호텔&리조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다녀 현재 호텔경영학과 석사 졸업을 앞두고 있고, 기회가 닿아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의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선배님의 대학 시절은 어땠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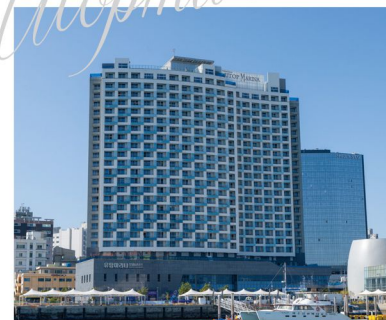
하하, 학창 시절 또한 바쁘고 알차게 보냈어요. 지금까지도 만나는 친구·선배들과 식사나 술자리, 여행을 함께 했고요. 시험 기간에는 밤새 독서실에서 공부했지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체육대회에서 치어리더 활동을 한 거예요. 몸치, 박치라서 배우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여러 동기와 선배들이 잘 알려준 덕분에 무사히 치어리더 활동을 할 수 있었지요. 지금도 가끔 그 시절 사진이나 영상을 보며 추억하기도 하고, 가끔 노래방에 가면 그 노래들을 부르며 치어리더 동작을 하곤 합니다. 홍보대사를 하며 타 학과 친구들을 알게 되고, 인하공전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학교 활동을 했던 추억도 있네요. 낭만 있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최연소 부총지배인이란니, 정말 대단하세요.

부끄럽습니다. 아직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호텔리어인데 여러 선배들과 동료들이 믿고 따라와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에서의 진급은 캡틴, 지배인, 팀장, 그룹장, 총지배인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부총지배인의 자리까지는 25년 이상 걸리는데, 저는 운이 좋게 10년 만에 좋은 자리에 있게 되었네요.

저만의 팁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고객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배인까지의 승진은 동료들의 평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계획력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요. 호텔에서 볼거리, 놀거리 등을 기획하고 호텔의 포지션과 브랜딩을 정해야 고객들이 우리 호텔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eosu Expo
Utopia Marina*



호텔의 부총지배인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부총지배인의 업무는 각 호텔이 추구하는 고객, 포지션, 목적, 마케팅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호텔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지요. 객실, 식음, 조리, 마케팅, 세일즈 등 호텔 전 부서와 매일같이 소통하여 호텔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합니다.

완벽할 것 같은 선배님도 처음에는 사회생활이 어려웠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제주도 호텔로 이직하면서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생활했을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적응도 힘들고 친구나 부모님을 쉽게 만날 수 없어 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겪었어요. 그때 제 멘토인 선배를 만났고, 업무 성공에 대한 성취감과 개인적인 능력의 성장에 힘을 쏟으며 이겨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각자 무엇이 나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힘이 나게 하는지 한 번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호텔리어의 필수 덕목은 무엇일까요?

인내심과 끈기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나 어학 능력, 그루밍 등은 지원자 대부분이 상향 평준화되어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에 대해 이해하며 충분한 시간 동안 실력과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호텔리어에게는 마인드컨트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여러 명의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후배들에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평생 내가 해야만 하는 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면 고객들에 대한 이해나 업무의 효율성, 자존감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니까요.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10년 선배라고는 하지만, 저 역시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투성이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당장 입학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 여러분들은 설렘과 떨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클 텐데요. 인생 설계를 급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인하공전의 학생들은 너무 좋은 기회를 마주칠 일이 많으니까요. 충분히 아름다운 20대 초반,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후배 여러분이 스스로의 무궁한 가능성을 믿으며 단단한 마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

탑건:매버릭의 마하 10,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항공기계공학과 진원진 교수님

톰 크루즈의 리즈 시절 대표작 <탑건>.
그는 중후해졌지만, 비행은 더욱 현란해졌다.
강력한 속도감을 자랑하는 마하 10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자.

비현실적인 속도, 짜릿한 상상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한다는 말이 뭘지 알았어. 영화 <탑건: 매버릭>을 보면서 말야. 마하 10과 중력가속도 G10의 속도감, 거기에 5세대 전투기와와 근접 공중전이나 지대공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비행 장면은 가히 압.도.적. 1986년 개봉한 영화 <탑건>의 후속작인 <탑건:매버릭>은 여전히 카리스마와 상황 판단력을 갖춘 탑건 교관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영화야.

그런데 마하 10은 어느 정도의 속도를 말하는 걸까? 마하 10은 음속의 10배란 뜻이고, 1초에 대략 3km를 비행하는 속도야. 이렇게 설명하니 도통 모르겠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25km. 마하 10이면 2분 이내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어. 굉장하지?

마하 속도가 영화 속 이야기인 것만은 아냐. 고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으로 가속하기도 하고, 우주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권에 진입하는 우주 왕복선이 마하 25를 기록한 적도 있어. 하지만 이런 비행체들은 높은 고도에서 비행해. 대기의 밀도가 낮아서 공기 저항이 낮은 곳 말야. 또 미사일과 우주왕복선은 로켓엔진으로 추진하므로 고속 비행시간도 짧아.

그렇다면 마하 10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항공기가 대기의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마하 10 이상으로 장시간 비행을 하려면 기존의 제트엔진으로는 불가능해. <탑건:매버릭>에 등장한 ‘Scramjet’ 처럼 새로운 개념의 엔진이 필요하지. 안타깝게도 Scramjet은 아직 연구 단계이고 완성도가 높은 편은 아냐. 또, 밀도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면 공기 저항 때문에 항공기 표면의 온도가 높아져. 기존의 일반 항공기용 재료는 마하 10의 높은 가열을 견디지 못하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마하 10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볼 수 있을 거야.

속도보다 중요한 것들

마하 10이 아직은 꿈같은 이야기라면, 지금의 비행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비행 고도와 속도가 차이나. 헬리콥터는 고도 4km 정도에서 시속 300km 전후로 비행하고, 제트 여객기는 고도 10km 정도에서 시속 900km 전후로 비행해. 초음속 전투기는 대략 시속 2,000km. 즉,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지.

과거의 전투기는 적의 대응을 피하면서 가능한 빠른 속도로 공격해야 했기 때문에 고속 비행 성능이 필수적이었어. 하지만 요즘은 스텔스 성능이 더 중요하지.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사일과 폭탄을 내부에 탑재해. 이에 따라 기체의 단면적이 증가하고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최고 속도는 마하 2를 넘지 않아. 빠른 속도로 비행하려면 엔진의 추력을 높여야 하고, 연료 소모가 빨라 멀리 날아가기 힘들기도 하니까.

여객기의 경우도 속도 대비 연료 소모율이 가장 낮은 마하 0.8 전후의 속도로 비행하지. 이처럼 속도가 빠르다고 항상 좋은 건 아냐. 각 항공기의 임무와 용도에 맞게 속도와 엔진 종류, 비행기 외형 디자인이 결정되지. 항공기보다 느리게 이동하는 함정이나 잠수함을 찾아 추격하는 해군의 정찰기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바다 위에서 체공하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펠러 엔진을 장착하고 저속으로 비행하고 말이야.

또한,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하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 주변의 소음 규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 초음속으로 비행하려면 추력이 높아 소음이 큰 엔진을 사용해야 하므로 현재의 소음 규정을 지킬 수 없거든. 최근 소음이 작은 초음속 여객기가 개발 중이니 조만간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

I believe I can fly

<탑건:매버릭>의 오프닝 장면에서는 전투기를 이륙시키기 위해 항공모함 위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수많은 정비사와 함상요원이 나와. 마지막 장면에서는 여러 조종사와 정비사가 함께 임무 완수를 축하하며 환호하고. 조종사뿐만 아니라 정비사의 역할 또한 비행의 근간이라는 의미지. 조종사가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구성하는 수십만 개의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해. 이를 위해 많은 정비사가 실제 비행시간의 몇 배 동안 항공기를 정비하지.

항공정비사의 업무는 대부분 냉난방이 없는 야외의 활주로나 대형 격납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울의 강추위와 여름의 무더위를 감당해야 해. 문제가 있는 항공기를 다음 날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운항시키기 위해 밤새워 정비 작업을 하는 일도 흔하고. 하지만 많은 정비사가 이를 기꺼이 견딜 만큼 비행기를 사랑해. 아마 여러분이 <탑건:매버릭>을 보면서 느끼는 두 시간 정도의 설렘이 그들의 마음에서는 더 오랫동안 두근거리며 살아있기 때문이겠지.

혹시 지금, 그 뜨거운 열정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인하공전 항공기계공학과를 찾아봐. 복잡한 항공기 기체 및 엔진부터 항공기 운용에 필수적인 각종 계통은 물론, 첨단 항공기에서 더 중요해진 항공전자 분야의 정비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이론과 실무교육 및 운항사의 현장실습까지 진행한다고.

항공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AERONAUTICAL & MECHANICAL ENGINEERING

1976년 국내 최초로 설립되어 국내 항공정비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Top Frontier 학과로, 다양한 이론과 실무교육 및 운항사의 현장실습을 통한 최고의 All-in-One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항공기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항공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02

데님의 시작이
작업복이라고?

패션디자인학과 나영원 교수님

청바지, 청치마, 청자켓. 데님은 패션과 댈레야 댈 수 없어. 패피 아이템하면 트렌치코트도 빼놓을 수 없고 말야. 알고 보면 깜짝 놀랄만한 패션 이야기, 들어볼래?



광부의 옷에서 젊음의 상징으로

청춘. 그 싱그러움만큼 사시사철 푸르른 데님은 젊은 세대들의 필수아이템이야. 10명 중 6명이 데님 패션을 즐기고, 매주 평균 3.5일을 입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 말야. 이러한 데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자, 리바이스의 창시자 리바이 스트라우스를 따라가 보자.

185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금을 캐러 온 많은 사람으로 붐볐어. 전 지역이 천막촌으로 변할 정도였지. 이때 천막천 생산자였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천막천 10만 개를 주문받았어. 빛을 내어 수량을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주문이 취소되었고, 그는 한순간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랐지. 망연자실한 그의 눈에 금광촌 광부들이 해진 작업복 바지를 꿰매는 모습이 보였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바

로 튼튼한 천막천으로 작업복을 만드는 거야! 그는 일주일 만에 작업복을 만들어냈고, 그 인기가 대단했어.

리바이는 자신의 원단으로 텐트와 수레 커버 등을 제작했던 제이콥 데이비스와 함께 데님에 리벳을 활용한 작업복을 만들어 1873년 5월 20일 특허를 받았어. 이날이 데님팬츠의 생일인 셈이지. 1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작업복, 즉 광부의 옷이었던 데님팬츠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패션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어.

군복에서 시작된 트렌치코트

‘군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 패션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들일 거야. 하지만 전쟁을 치르던 시대에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최고의 패션리더였어. 그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대중의 워너비였으니까. 군복의 속옷이었던 티셔츠, 해군의 제복이었던 피코트, 공군점퍼라 불리는 버머재킷, 미육군의 작업복이었던 치노팬츠. 거기에 가디건, 더플코트, 카고팬츠까지 전부 군복에서 유래된 아이템이야. 깜짝 놀랐지?

군복 아이템 중 가장 대표적인 트렌치코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그렇다면 먼저 버버리(Burberry)의 타이로켄(Tielocken)부터 짚고 가야 해. 1870년, 버버리에서 질기고 가벼우면서 방수가 가능한 소재인 개버딘을 개발해 영국군에 독점 납품했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장교들은 타이로켄을 전사용 코트로 착용하였는데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으로 장교들의 마음에 쏙 들었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기능성이 더 빛을 발했지. 소재의 장점 이외에도 목과 무릎을 감쌀 수 있는 길리로 비바람을 막아주었고 총과 장비를 몸에 두른 채 걸칠 수도 있는데다가 중상자를 이동할 때 필요한 들것을 만들기에도 안성맞춤이었거든. 길게는 수개월 동안 물 반 흘린 참호에서 지내는 동안 타이로켄은 트렌치코트(참호코트)라는 별명을 얻었어.

1917년 경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트렌치코트는 일반 대중에게 소개되어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 용맹한 영국군 장교의 제복이라는 상징성과 버버리만의 특화된 디자인과 소재,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이미지가 인기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 발표된 할리우드 영화 ‘카사블랑카’와 ‘애수’의 주인공이 입으면서 우수에 젖은 남자를 표현했고, 1962년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란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을 통해 유행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어.

패션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현장 중심형 실무지향 패션전문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패션디자이너 및 패션머천다izer 등 패션 산업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21세기 패션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돌고 도는 유행, 트렌드를 잡아내는 힘

흔히 유행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다고 해. ‘뉴트로’나 ‘Y2K’처럼 말야. 1990년대 유행했던 통넓은 바지, 큼지막한 브랜드 시그니처 로고 티셔츠, 오버핏 재킷, 청청 패션과 스니커즈의 조합으로 붐을 일으켰던 애슬레저룩은 2019년 뉴트로로 다시 등장했어. 2000년. 밀레니얼을 맞이하던 해에 유행한 치골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입은 로우라이즈 하의와 크롭탑, 작고 컬러풀한 틴티드 선글라스, 얇은 체인벨트의 Y2K는 2021년부터 재유행하고 있고. 예전에는 유행의 주기를 40년설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20년 주기설이 나올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렇게 바쁘게 변화하는 유행을 예측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 등의 지식은 물론, 뮤직비디오, 영화, 아트 등 예술적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수준 높은 정보를 지녀야 해. 참,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모두가 디자이너의 길을 걷는 건 아니야. 패션업계는 다양한 직업군으로 세분되어 있으니까. 옷을 디자인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무만 하더라도 디자이너, 테크니컬디자이너, 모델리스트 등이 있고 MD라 불리는 머천다izer도 기획MD, 소재MD, 영업MD, 생산MD, 구매MD, 유통MD 등으로 잘게 쪼개져. 전문성을 가진 프로로서의 성장 기회가 많기도 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어때? 크리에이터로서 유행을 만들고 자신과 더불어 타인을 멋지게 만드는 패션 전문가. 근사하지 않니? 인하공전 패션디자인학과는 패션테크니컬디자이너, 패션브랜드전략기획, 패션커뮤니케이션, 패션상품판매관리 등의 교과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또한, 실제적 산학연계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40여 개의 패션산업체와 산학협력 결연을 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 인력을 배출한다구. 너의 패션 미래를 만들어 봐!





인하브이로그를
영상으로 즐기세요



찬이, 재현, 성진의
몽골 해외봉사활동



벌써 올해도 마지막에
가까워졌어. 다들 기억
에 남을만한 추억을 차
곡차곡 쌓았겠지?

우리는 지난 10월 2일부터
9일까지 몽골에서 잊지 못
할 일주일들을 보내고 왔어.
생생한 몽골 이야기를 들
려줄게!

#항공운항과22_박찬이 #사전 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운항과 박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해외봉사활동 단원으로 참여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뻐요. 오늘은 몽골로 떠나기 하루 전, 사전 교육날입니다. 인천 영종도의 국제교육원에서 몽골 현지의 날씨, 문화, 간단한 인사를 배우고 활동에 대한 소개를 들으러 가요!



사전 교육에서는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 시민의 탐쌍기, 젠더 감수성 교육, 안전 교육 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며 팀원들과 가까워지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어요. 봉사를 하러 가기 전, 나에게 편지를 쓰며 열정과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44번 학교



몽골 학교는 이름이 없이 번호로 부릅니다. 저희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44번 학교에 왔어요. 이곳은 1학년부터 12학년이 다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셈이지요. 학생들 모두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저와 일주일 동안 가깝게 지낼 짝꿍 친구 알공체책은 18살로,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해왔대요. 덕분에 대화가 수월해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답니다.

#K-인하 콘서트



점심 식사 후 진행된 인하 콘서트는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케이팝 댄스를 따라 추는 친구들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문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인 강남스타일을 부를 때는 모두 같이 나와서 춤을 쳤는데, 그 순간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이 와서 감동적이었어요.

#벽화그리기



오늘은 벽화를 그리는 날입니다. 몽골 친구들과 함께 색을 섞고 대화를 하며 예쁜 그림을 채워나갔지요. 벽화를 그린 후에는 시내로 놀러갔는데, 버스를 타고 또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바로 KFC입니다! 하하. 낯선 곳에서 먹는 익숙한 맛,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요. 식사 후에는 몽골 친구들과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놀았어요. 서로 끌어주며 기차놀이를 한 게 즐거웠습니다.

#홈스테이



홈스테이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길을 가던 차가 갑자기 택시가 되어 저희를 태우고 친구네 집으로 향해 깜짝 놀랐어요. 친구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과일과 양고기 등을 내어주셨고, 어린 동생들과는 동요를 틀고 춤을 추기도 하고, 슬라임을 가지고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몽골의 정



친구 집에서 아침밥을 먹은 후 할머니께서 간식거리와 선물을 잔뜩 챙겨주셔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떼며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은 말보다 강하다는 게 새삼 느껴지네요. 몽골 가정의 따뜻한 온기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울렁거리면서도 단단한 힘이 생긴 기분입니다.

#미니운동회



정든 몽골 친구들과 헤어지는 날이에요. 모두 국립공원으로 향했지요. 양고기로 점심을 먹은 후, 제기차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을 하며 몽골 학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고, 몽골 친구들과 포옹을 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제 짝꿍 알공체척이 직접 만든 팔찌를 선물해 주었는데,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고마운 선물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입니다. 몽골은 굉장히 추웠지만 정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선물 같은 일주일을 지내며, 음악과 미술, 체육은 언어가 필요 없는 소통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유의 향이 나는 양고기와 말고기를 먹을 때마다 고추장을 손에 쥐고 먹었는데요. 조금은 힘들었던 식사마저 그리워질 것 같네요. 앞으로 더 많이 채우고 배워서 한국의 이름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관광경영학과19_박재현 #기계공학과19_이성진



안녕하세요, 저희는 관광경영학과 박재현, 기계공학과 이성진입니다. 이번에 온 해피와 인하공전이 협력하여 주최한 몽골 해외 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설렘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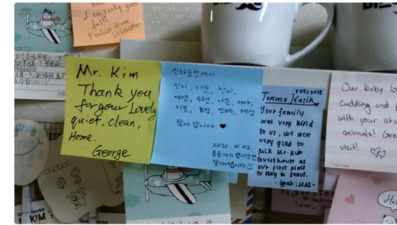


아침 일찍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보니 더욱 설레더라고요. 3시간 반의 비행 동안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는데,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한 순간 너무나도 시원한 공기와 넓은 풍경에 마음이 탁 트이는 듯하네요. 영하 12도. 눈이 쌓여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한국보다 매우 추운 날이라 입김이 나오지만, 단원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군요.



몽골에서의 첫 식사는 부대찌개였어요. 익숙한 음식이지만 추운 몽골에서 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인하콘서트 준비를 마친 뒤 저녁 식사는 몽골 현지식으로 했습니다. 게르를 직접 가지 못한 대신 게르 내부 형식의 식당을 찾았는데, 신기하고 이색적이었어요. 음식은 한국의 만두와 비슷해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몽골의 전통차인 수태차 역시 우유처럼 고소하고 깊은 맛에 두 잔이나 마셨어요.

#44번_학교_친구들 #열린_한국어_교실



44번 학교에서 재현이의 짝꿍은 탕기스이고, 성진이의 짝은 투굴툴어드예요. 인하콘서트에서는 학과 소개와 학교 소개, 학교 주변 소개 등을 진행한 후, 몽골 친구들과 저희가 각자 준비해온 노래와 춤을 서로 보여주며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하교 후에는 몽골 친구들과 함께 몽골의 명소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며 진짜 친구가 되었답니다.



인하공전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몽골 친구들을 위해 면접을 위한 팁을 알려주고 한국어 면접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어려워하는 발음을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나서 멋지더라고요. 꼭 다시 만나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오늘은 몽골 학교의 '선생님의 날'인데요. 선생님들은 교복을 입고 오시고 학생들은 선생님 대신 수업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 동안 친해진 어트커라는 친구가 영어 선생님이 되어 수업한다고 하기에 가보기로 했어요. 어트커, 너무 멋있었어요!

#마지막날



벌써 마지막이라니. 지나가면서 보던 친구들까지 친해져 정이 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오늘은 몽골 친구들과 함께 몽골 역사박물관과 울란바토르 전망대를 가보았습니다. 몽골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구들과 같이 쌓은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한마음 미니 운동회에서는 댄스 경진대회도 하고 제기차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몽골 친구들과 마음을 나눴지요.



낙타와 말타기 체험을 했는데 정말 재밌네요! 말이 너무 작아서 제 무게가 버겁진 않을지 걱정스러웠지만 말예요. 책이나 화면에서만 보던 낙타 등에 오르면 정말 여행에 온 듯 했습니다. 한국의 바위와는 느낌이 다르면서 정말 컸던 거북바위, 한국의 절과 비슷한 느낌의 국립공원 내부의 절. 몽골을 다니며 참 한국과 다른 듯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한국으로



짧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에게 벽화를 그려주고 우리 말과 인하를 알리러 떠난 일정이었지만,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받은 기분입니다. 타지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순수하고 착한 몽골 친구들과 함께여서 힘든 기억은 금세 잊혀지고 행복한 마음만 많이 품고 가네요. 몽골 친구들과,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좋은 결과 얻어서 이번에는 한국에서 또 재미있는 추억 만들자, 고마웠어요!

공모전을 누비는 우리들

실력도 쌓고, 스펙도 쌓고, 추억은 덤.
국내외 공모전에서 인하의 이름을 알린
수상자들을 소개할게!



VANCOUVER AFFORDABLE HOUSING CHALLENGE

안녕? 우리는 BUILDNER(BEE BREEDERS)에서 주최하는 건축 경연 대회에 참가했어. 이 공모전은 세계 주택 위기를 건축으로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홍콩, 파리, 베를린 등에서 열려왔으며, 이번에는 밴쿠버에서 진행했어. 밴쿠버는 캐나다 서해안에 위치하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에 정기적으로 오르곤 해. 하지만 그에 따라 도시 지역, 아파트, 타운 홈 등이 비용 상승 문제를 겪고 있지. 주제에 표현된 'Affordable'는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란 의미야.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가족 단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해. 효율성과 창의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지.

Promenade Architecturale

실내건축학과22 권혜연

나는 근대건축의 거장이라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가 정의한 '건축적 산책'이란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어. 외부와 내부가 연속적으로 교차하는 통로를 이동할 때마다 마치 산책하듯 다른 시선, 다른 풍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개념이지. 나 역시 주택 자체가 자연을 향한 산책로가 되기를 원했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여유로운 일상을 추구하는 밴쿠버의 이미지에도 맞았고.

한국과는 매우 다른 환경과 인문학적 배경, 문화, 생활 패턴까지 고려해서 주택을 설계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자료조사에 투자했어. 낮에는 알바를, 저녁에는 학교 수업을 병행하며 틈틈이 작업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작품에 대한 열정 덕분에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쏟아지는 경연 대회에서 내 작품이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큰 영광이야.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볼게.



입선



Green Line House

실내건축학과22 김상우

나는 밴쿠버의 자연환경을 이용했어. 자료조사를 해보니 밴쿠버는 인도 옆에 나무를 심은 잔디 길이 있더라고. 나무끼리의 간격이 5~10m로 크다고 생각해서 그 공간에 모듈형 주거를 만들면 어떨까 싶었어. 1인, 2인, 3인용 주거로 사용자가 원하는 모듈주거를 선택하는 거지. 모듈주거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손상되었을 때 쉽게 교체할 수 있고 차도의 소음은 마감재로 최소화했어. 대지면적만큼 옥상 조경을 활용하여 주민 간의 커뮤니티시설을 만들었고.

해외에서도 내 프로젝트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더라. 물론 밴쿠버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데다가 해외 공모전 자료는 국내와의 다른 감성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또 한 번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 결과물이 생각보다 아쉽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해. 앞으로도 이번처럼 더 많은 도전을 하고, 나중에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입선

VANCOUVER TRIANGLE HOUSE

실내건축학과22, 배서영

나는 밴쿠버의 비싼 집값을 문제로 제기하고 자전거 교통편이 잘 되어있는 특징을 살려보았어. 상업 시설, 회사 등이 밀집된 다운타운으로 가는 다리의 하부 트러스구조에 모듈형 주택을 끼워 넣는 프로젝트를 구상했지. 대지가 필요하지 않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노후시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실내건축과에서는 3학년 때 큰 규모의 국내 공모전에 참가해. 공모전을 준비하고 과정과 결과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도, 인정받기도 하지. 심화과정에서도 그 연장선을 이어 아이디어를 표출해보고 싶었어. 막상 준비하다 보니 아이디어를 강조할지, 현실적인 작품을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 나는 아이디어를 선택했고, 그러다보니 식상하지 않고 재미있는 형태를 제안했어. 형태를 삼각형으로 잡고, 기울어진 벽면 때문에 남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수납공간을 낮추기도 하고 말야. 앞으로도 하고 싶은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표현해보려고 해.



입선



입선

SPACE IN SPACE
Inverted Housing with a dwelling in a community space

Space in Space

실내건축학과22 이문교

캐나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리를 크게 낮추었어. 이로 인해 저축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면서 주택 가격은 더욱 상승했지. 새로 일을 시작하는 부부는 13년 동안 소득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집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야. 때문에 나는 좁은 면적에 최대한 많은 거주자를 수용하기 위해 주상복합형태를 선택했어. 또한 밴쿠버는 다양한 민족이 살기 때문에 다문화가 어울리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커뮤니티 공간에 중점을 뒀어. 홍수와 산불에도 대비해서 외피 재질을 돌로 했고, 중요한 부분에는 주황색. 주황색은 삶의 즐거움, 경쾌함을 불어넣어 주거든.

그동안 주로 실내공간 위주로 디자인해보았는데 이번에 전체를 다루고 형태를 변형시켜볼 수 있었어. 마감 2주 전에 모델링을 변경한 데다가 컴퓨터도 포맷되는 바람에 매일 잠을 못 자고 힘들었지만 그 덕에 뜻깊은 추억이 되었어. 앞으로도 건축 분야에서 나의 확실한 색깔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2022 한국인테리어대전

Beyond Reality

실내건축학과18 이지수

안녕, 내가 참가한 한국인테리어대전은 월간인테리어잡지에서 주최하는 디자인공모전이야.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메타버스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 메타버스의 기술이 대중에게는 아직 낯설 수 있는데, 대중 친화적인 메타버스 체험전시관을 만든다면 향후 메타버스 기술의 사회·경제·문화적 측면 모두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공모전이라는 게 사실 준비하기 쉽지는 않아. 잠도 부족하고, 손도 많이 가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혼자라면 두렵고 겁나는 과정이었을 텐데, 학과 친구들도 준비하니 안심이 되었고 특히 조영배 교수님께서 따뜻하게 서포트해주셔서 무사히 마감하고 좋은 결과까지 얻었어. 내 디자인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방식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안도감도 들고 자신감도 얻었어. 이번 공모전을 원동력으로 앞으로 실내건축에 계속 열중하려고!



특선



제9회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 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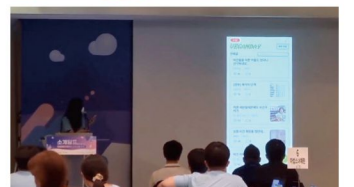
비건데이

팀 인시큐어(컴퓨터정보과22 송휘, 컴퓨터시스템과18 이성호, 20 노예원, 20 양하연)

SW개발보안 경진대회는 행전안전부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한국정보보호학회가 후원하는 경진대회야. 미래 개발자들인 대학(원)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개발보안이 적용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대회지.

2022년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건강 등의 이유로 '비건'이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하고 있어. 드럭스토어나 마트만 가더라도 비건을 내세운 제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지. 우리는 흐름에 비해 IT시장 구축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껴 비거니즘 통합 애플리케이션 '비건데이'를 개발하기로 했어. 기능으로는 원재료명을 촬영하면 비건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OCR성분분석기능, 비건쇼핑몰, 비건카페나 식당 뿐만 아니라 제로 웨이트 샵이 표시된 비거니즘 지도를 담았지.

처음 해보는 작업에 다들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팀원들 모두가 매일 밤 온라인 회의를 하며 열심히 참여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서 얻은 값진 결과라고 생각해. 대회로 그치지 않고 미래의 개발자로서 크게 성장하자, 우리.



한눈에 보는

신소재공학부 돋보기로 보는 학과

- 화학생명공학과
- 재료공학과



돋보기로 보는 학과를
영상으로 즐기세요

사람들은 언제나
신소재에 열광하지.

왜냐고?
신소재는
인간의 삶과 문화를
바꾸기 때문에!

역사 속의
신소재를
찾아 볼까?

금, 도자기, 철, 종이,
고무, 자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실리콘...
엄청 많아.

모두들,
없었던 시절로는
돌아가기 곤란한
필수 소재들이지!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더욱 새롭고 강화된
신소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형상기억합금,
파인세라믹스,
광섬유, 바이오센서,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고효율성 분자막
등등

자...
그렇다면
결론!!

두

메

나는!
다음 시대를
이어나갈
신소재를
개발해내겠어!

아차, 그런데...
신소재공학부에는
재료공학과와
화학생명공학과가
있잖아.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난
화학생명공학과!

난
재료공학과!

하하,
원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화학생명공학과는
옛날 연금술사들의
먼 후예들이랄까?

화학공학이나
공업화학, 환경,
생물공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첨단 실험설비로
화학 물질을 분석하거나
바이오 제품을 제조하는 등
다양한 실험 실습을
진행해.

특성상
깨끗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장점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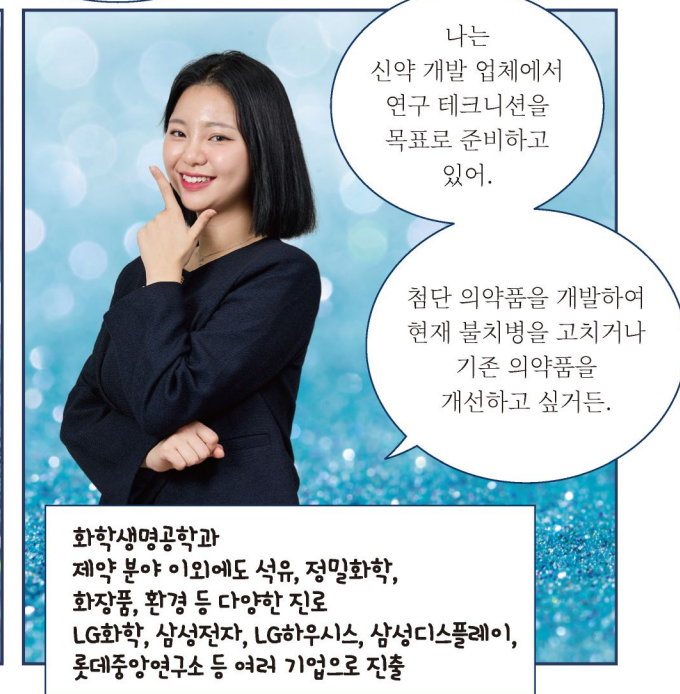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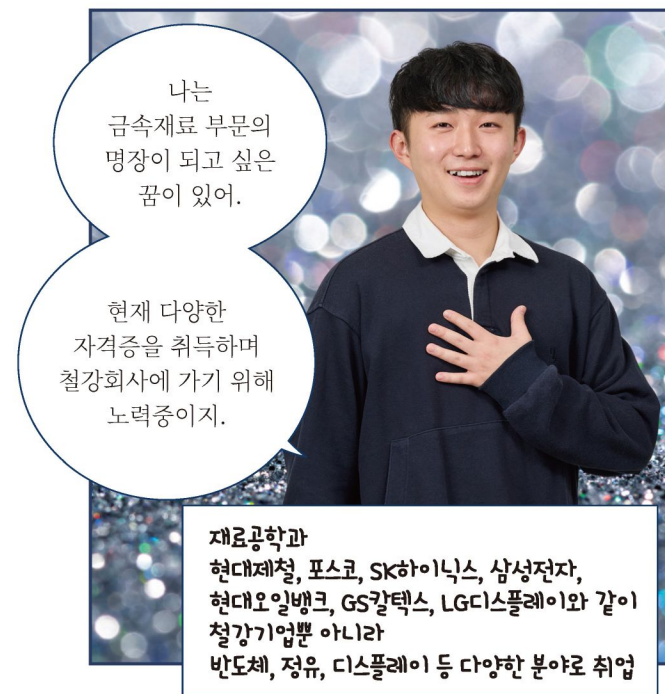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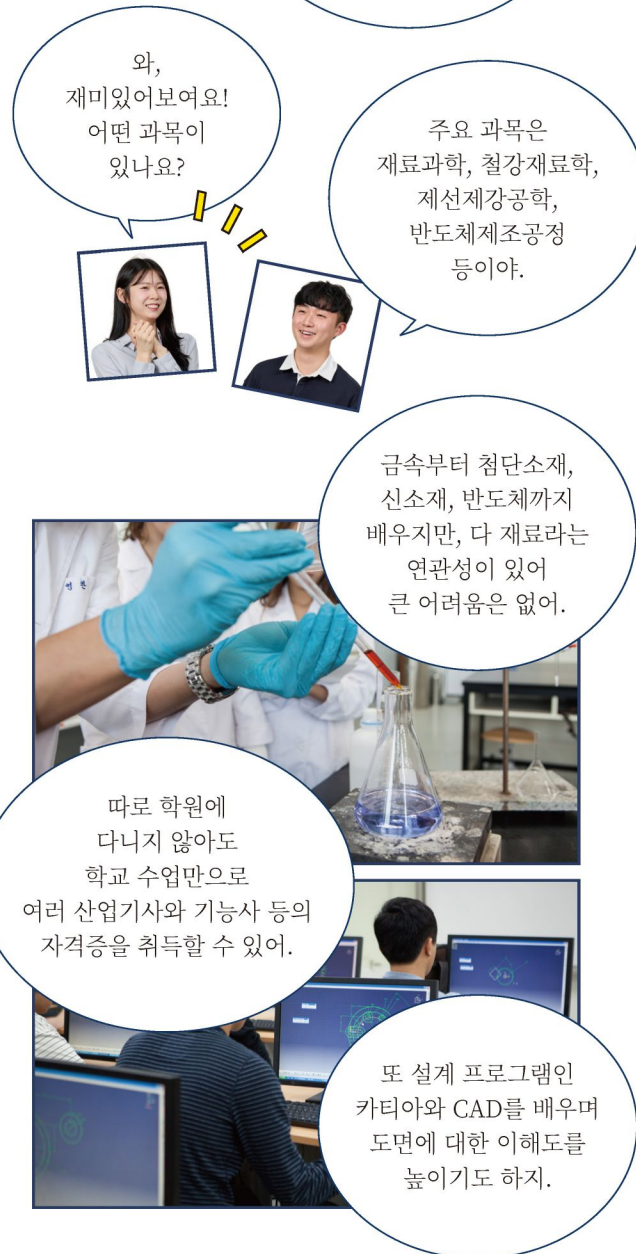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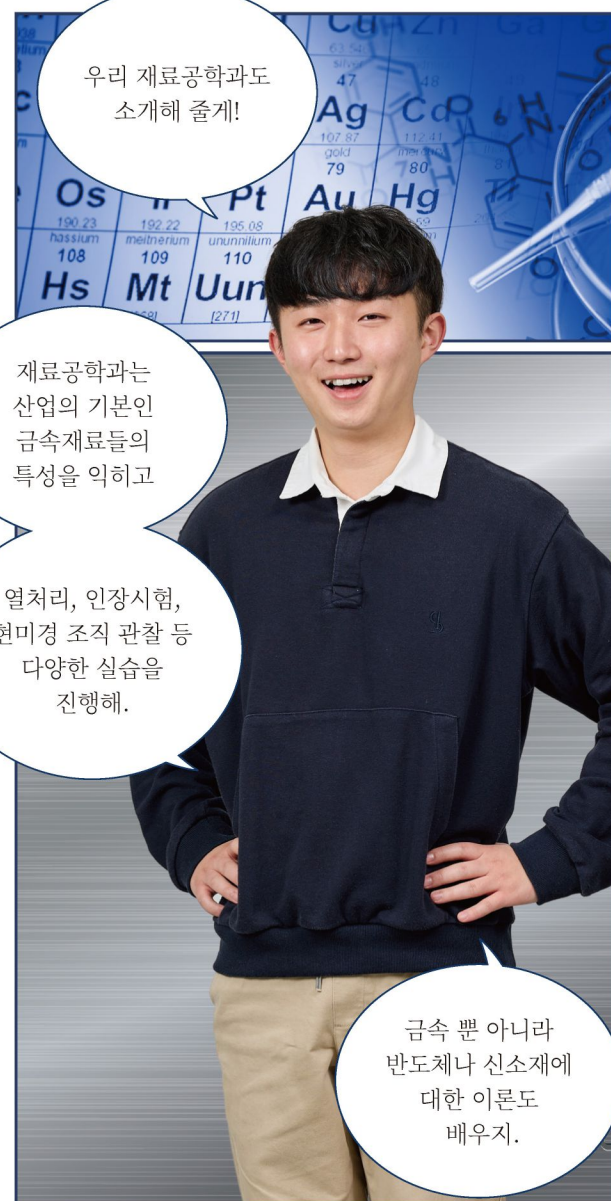
꼼꼼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학생이라면 더욱
적성에 맞을 거야.

와,
흥미로워요!

저는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거든요. 분석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는 분광광도계라는
분석기기를 처음 접하고
분석화학에 관심이 생겨
인하공전에 입학했어.

다양한 분석기기를
경험하고 운영해보는
즐거움에 너도
빠져들게 될 거야!



2022 올해, 가장 즐거웠던 일

한 해가 쏜살같이 흘러갔지만,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 중에도 돌아보면 분명 즐거운 일이 많았어. 2022년, 좋았던 추억을 모두와 나누어보자. 소중한 순간을 더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휴학했을 때 늘 여유로웠는데 복학하니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요. 이대로는 2022년을 아쉽게 보낼 거 같아서 둘러 여행 계획을 짜게 되었어요. 바로 강릉 바다로!! 늘 서해 쪽에 있던 제가 동해 바다를 보러 간다니 가기 전부터 벌써 두근두근했지요. 똑같은 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착해서 본 강릉 바다는 맑은 하늘과 드넓은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보이는 많은 별과 하늘에서 계속 터지는 폭죽 너무 아름답고 꿈같은 여행이었어요. 잊지 못할 강릉 여행 아직 2022년 끝나지 않았으니깐 꼭 다들 가 보셨으면 합니다!

건축학과 21학번 마승민

제가 웃는 모습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 마음도 잘 맞고 유머코드도 잘 맞는 친구들을 사귄 거 같아서 학교 다니는게 너무 행복해요!

석정여자고등학교 최은화

승무원을 꿈꾸고 있는 고2입니다! 한 해 정말 열심히 열정있게 살겠다며 마음먹고 21년 12월 31일 밤에 올림픽 공원까지 친구들과 걸어가 해돋이를 보고 열정을 외치고 온 지도 어느덧 9개월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열네살부터의 꿈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올해는 꼭 토익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저의 첫번째 목표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8월에 드디어 첫 토익 시험에 응시했는데 시험이 끝나고 정말 ‘아...’ 싶더군요 ㅎㅎ 완전히 망 뻔이었거든요(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제 자신에게 보상의 의미로 그날은 맛난 것도 먹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 날 ‘첫 시험은 자기 발사이즈 만큼의 점수만 나와도 성공이다’를 되뇌이며(저의 발 사이즈는 240입니다ㅠ) 심호흡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살짝 실눈을 뜨고 확인한 제 점수는 500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 알려드렸는데 기뻐해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께서 지인 분들께 딸이 첫 토익 시험을 쳤는데 500점이 나왔는데 나는 이게 잘한 건지도 모르겠어~ 하시며 자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도 뿌듯했습니다 ㅋ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저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인하공전 24학번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컨베전고등학교 김신해

10년 전 상하이로 유학갔던 친구를 만났어요! 10년전 웃는 모습이랑 똑같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ㅎㅎ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만난거라 더 좋았던거 같네용♡

검단고등학교 김서현

저희 과에서는 학기 전반에 걸쳐서 설계를 합니다. 매주 과제가 나가는 수업과는 다르게 한 학기 내내 붙들고 있어야하는 과목이에요. 처음엔 선배들이 설계 어렵다. 설계가 제일 하기 힘들다고 얘기해서 엄청 겁먹고 있었어요. 설계하다가 안맞는 친구들은 휴학도 많이하고 자퇴까지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큰 맘먹고 온 대학 금방 자퇴하게 될까봐 많이 겁먹었구요. 그렇게 겁을 먹은 채 1학기를 보내고 방학동안 학원에 다니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올려놓고 비장한 마음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설계 수업을 처음 듣자마자 저는 깨달았어요. 와.. 이걸 내 길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었던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나만의 건물을 만드는 이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친구들은 프로그래밍 다루기가 힘들고 제안서 만들기는걸 좋아하고 내 건물을 만드는게 너무 즐거워서 저는 저번주 내내 총 17시간 자고 설계를 했어요. 이렇게 폭 빠져있는 게 저의 제안서에도 나타난건지 교수님께서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시고 저도 기분이 좋아서 더 계속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건축학과 박현영

여자친구도 올해 초에 사귀고, 원하는 대기업에도 취직하고, 올해 삼재라는 데 기운이 좋네요!

화학생명공학과 윤은상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와 친구가 한 명도 없던 저에게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친한 친구로 지내고 싶은 편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제게 예쁘다고 시도때도 없이 애기를 해주어 지금은 자존감이 아주 높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곧 있을 면접 때 주눅들어 있을테지만 지금은 자신감있게 모의면접을 마무리하곤 합니다!!

권선고등학교 김유정

올해 인하공전에서 축제를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등학생 때 축제를 못 즐겼는데 대학생 되고 축제를 하게 되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수요일, 목요일 모두 부스를 운영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사귀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극강의 인데... MBTI가 E로 바뀌었는데 한 번 검사해 봐야겠어요 ㅋㅋㅋㅋ 부스 운영이 끝난 6시 이후에는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연예인들이 와서 축제를 더 신나게 즐길 수 있었어요. 무대 처음에 노래 부르신 여성분도 기억에 남고 해병대 출신 남성분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다음에는 호미들과 릴김치가 분위기 더 띄워주고 마지막에 10cm까지! 너무나도 완벽한 라인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부스 운영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과 선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 축제도 너무 기대돼요! 내년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안 계셔서 조금은 걱정되지만... 인하랑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

화학생명공학과 임소정

저에게겐 어려울 때부터 정말 친하고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모두 같은 곳으로 나왔고 완전 베스트입니다. 같이 처음으로 스카에 가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밤을 새우고, 처음으로 제가 사는 곳이 아닌 먼 지역으로 부모님 없이 단 둘이 여행도 가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친구가 어느날 학교를 안 왔습니다. 왜 안 오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고.. 입원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진짜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병문안을 갔더니 친구가 저를 보고 엄청 웃으며 반겨주는 겁니다. 전 그 친구를 보자마자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진짜 죽는거냐고 진짜냐고 울면서 말하자 그 친구가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사실 거짓말이야. 그 순간 화가 나기보단 그 친구를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로 보며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도의 웃음이었건지 정말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날 저녁까지 같이 넷플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소중한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일이네요!

대전여자고등학교 박다연

여름방학 중 친구들과 입대 전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기에 간단하게 팬션을 빌려서 2박3일로 즐겁게 놀았다. 마당에서 사운 고기를 구워먹고 가져온 보드게임으로 놀면서 벌칙으로 술도 먹으며 다신 없을 재밌는 추억을 만든 거 같다. 제각각 다른 학교를 갔기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지만 매일 보는 것처럼 편하게 떠들었다.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떠들며 놀아대느라 핸드폰을 만질 시간도 없었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고 앞으로도 두터운 우정을 이어나갈 내 평생 친구들은 내 인생의 자랑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길 이 자리를 빌려 빌어본다.

기계설계공학과 권태성

얼마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학교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전학년 단체활동이라 정말 들뜬 마음으로 친구와 팀을 꾸려 신청을 하였습니다.. ㅎㅎ 체육시간마다 대회에 이기려고 반 친구들과 주구장창 배드민턴만 쳤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점심시간에도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배드민턴대회 당일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선부터 탈락을 하였습니다 ㅎㅎ 눈물이 조금 났지만 잘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서 놀랐어요!! 비록 대회에서 졌지만 저처럼 친구들을 엄청 열정적으로 응원해줬어요!! 그때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엄청 몽글하고 감동적이고 재밌었던 추억입니다 ㅎㅎ

공항공고등학교 모예원

대입 준비로 이리저리 바쁘게 지내던 날 학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반갑게 안아주셨습니다. 내년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희라는 초등학교 때에도 승부욕이 강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서 뭘 하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이후로 지금 저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엔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고3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꿈에 대한 확신 때문에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잘 이겨내서 우리 모두 원하는 걸 이뤄내길 바랍니다 :)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화이팅!!!

명일여자고등학교 박희라

중학교 3년 내내 엄청 엄청 친했던 친구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지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얼마 전 카카오톡에 그 친구가 생일이라는 게 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오후만이다, 고맙다 라며 답장이 왔고 그 뒤로 쪽 연락 중이에요 그 친구가 먼저 연락해 줘서 고맙다고 하고 심지어 진로도 똑같아서 더 더 반가웠어요! 마음 놓고 속마음 털어 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였는데 잊지 않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대광여자고등학교 김재영

얼마전 학교가 끝난 뒤 혼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툭툭 쳐서 뒤돌았는데 중년여성 2분이 말씀은 없으시고 이 길이 맞냐는 제스처만 하셨습니다. 알고보니 두분 모두 언어장애인이셨고 저는 중학생 때 학교에서 간단히 배웠던 수화가 조금씩 기억났지만 그 미흡한 수화실력으로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하다 휴대폰 메모장이 떠올랐고, 메모장으로 두분께서 찾는 장소의 길을 설명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찾으신 2분은 저에게 감사하다는 손짓을 하셨고 누군가에겐 사소한 일일진 몰라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제 대처가 답답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연신 고맙다고 해주셔서 몽클하기도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김소정

올해 초 방학 때 집에서 동생과 봉숭아 물들이기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서로 해주고 나서 몇 분쯤 지났을까 뭔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세하게 났지만 그냥 다 물들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묶은 걸 풀고 손가락을 봤더니..글쎄 손톱을 물들인게 아니라 손가락을 물들인건가 싶을 정도로 손이 물들어 있더라고요!!! 곧 개학이라 지우는 방법을 계속 찾아봤었지만 결국 그대로 개학...가린다고 가렸지만 가릴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진 제 손을 보고 다들 김치 국물에 절였냐, 떡볶이 먹고 왔냐, 손에 불닭 흘렸냐, 굴 먹다가 왔냐 등등 오만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좋은 점이라곤 이정도면 짜사랑을 이루고도 남을 정도였다는 거..? 사실 제가 봐도 어이없고 너무 웃겼던지라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ㅎㅎ

ps. 다행히 지금은 지워진 상태!

전북여자고등학교 윤지혜

올해 좋았던 건, 항공과 입시에 도움되는 계정을 만든 일입니다. 저는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는 아니지만, 타 항공과에 재학 중이며 동시에 레스토랑에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손목이 급격히 좋지 않아져서 3주 간 휴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고등학생들의 항공과 면접 시즌이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계정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는 친구들의 1순위 대학으로 저 또한 가장 희망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놓치고 후회했던 부분들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기쁘고 보람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도움이 될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자격으로 이런걸 운영하냐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함께 배워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포스코 o&m 전소영

요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 다시 빠지게 되어서 재방송을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송중기는 언제나 봐도 멋있는 거 같습니다ㅎㅎ 그리고 다른 집에서 버림받은 새끼강아지 한 마리를 이번에 입양해서 보리라고 이름붙여주고 원래 저의 반려견인 별이와 함께 잘 키우고 있습니다. 별이와 보리는 나이도 비슷하고 똑같이 말티즈라 별이와 보리가 만난 것도, 보리와 저희가족이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성지고등학교 주예진

평소처럼 셔브웨이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까다롭게 여러가지 주문을 하시길래 최대한 기분 좋게 맞춰드렸습니다. 하지만 포장할때 손님을 위해서 야채를 정량보다 많이 넣어드리다가 살짝 많이 떨어졌는데, 다른 곳은 안그런데 왜 떨어뜨리냐는 등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웃으면서 '죄송해요 다음에 오시면 야채 안 떨어뜨리고 더 넣어드릴게요~' 라고 응대했습니다. 그 손님이 짜증나게 별게 아니지만 그 뒤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그 아주머니 뒤에 있던 남자 손님이 나중에 다시 저에게 와서 '아까 그분 말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고 말씀해주시고 가는데 그 말 한마디가 엄청 위안이 되면서 힘이 되었습니다. 알바하면서 힘들지만 그런 분들 덕분에 더욱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잠일고등학교 이수빈

방학동안 즐겁게 공부했던 자격증 시험지를 채점했는데.. 아쉽게 불합격이 나왔어요. 아쉬운 마음에 합격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음 회차 시험을 접수하려 했는데 알고보니 합격해있더라구요. 그냥 웃기고 신기했던 경험!

호텔경영학과 이다영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4년 넘게 좋아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그 친구는 항상 제 상황을 잘 알아채서 늘 먼저 물어봐주고 도와주는 친구였어요. 평소에는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서로 장난도 치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연락이 뜸해지고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어차피 만날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다가고, 갑자기 응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이번 수능 잘보고라 연락했어~ 화이팅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밝게 웃으며 애기해주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강을 하고 문득 깨닫고보니 그 친구를 비로소 친구로서 좋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날 이 친구에게 제가 사는 서울에 놀러와도 되냐고 문자가 왔고, 친구와 성인이 된 후 처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평범한 그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중학생 때 있었던 일, 서로 고등학교에서 일어났었던 재밌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밖에서 따로 만나서 놀아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편하고 즐거웠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오래 간직해서 친구로 만나고 지낼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했습니다.

비서학과 한희주

별거 아니겠지만 커가면서 부모님과 다같이 밥한끼 먹는게 어려웠는데 이번 년도에는 부모님과 식사를 함께한 기억이 가장 행복했던거 같습니다.

인천해송고등학교 신수빈

2022년 가장 즐거웠던 건 '선덕여왕 선발 대회'에서 '진'을 수상했던 일입니다. 평소 저는 학교에서 홍보단장을 맡고 선도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굉장히 즐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수학생생님께서 선덕여왕 선발 대회에 참가해 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살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선덕여왕 선발대회가 굉장히 큰 행사였기에 올해 대회가 재개되면서 저도 지원자격에 맞는 19세가 되었고 '한번 도전해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 제출 후 1차 합격이 되고 2차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지원자 중 제가 가장 어렸기 때문에 많이 떨렸습니다. 결과 발표를 할 때 '선', '미'에서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아 실마실마했는데 '진'에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가족들과 학교 선생님, 친구들도 다들 기뻐하면서 축하를 해주어 정말 기쁘고 뿌듯했고 도전해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대회가 전보다는 많이 홍보되지 않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부분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청성대 일대를 행차하는 '선덕여왕 청성대에 행차하다'라는 행사에서 선덕여왕의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화랑, 장군, 호위무사, 원하들과 함께 행차를 재현했습니다. 행차의 마지막은 청성대 앞에서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과 사진을 찍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 부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으로 10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선덕여자고등학교 김단아

태풍이 온 날 도로에서 달팽이가 아파하길래 집에 데려와서 키웠어요! 당근 이랑 상추 주니까 맛있게 먹는 모습에 뿌듯하기도 했고 생명의 소중함도 다시 한 번 느낀 경험이었습니디! 아직까지 키우고 있고 이름은 핑핑이에요~

운천고등학교 김수민

올해 딸이 생일 선물로 애플워치를 사주었습니다. 딸이 20살이 되고 나도, 딸 본인도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해 준 것으로도 정말 즐거웠는데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생일 선물을 크게 챙겨주었네요. 사실 축하만 받아도 정말 고마운데, 가지고 싶었던 선물까지 함께 주니 이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네요. 엄마의 취향을 적중한 딸 덕분에 지난 47년 동안 보냈던 생일 중에 제일 좋았던 생일을 보냈습니다.

40대 헤란

평소 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서 지금까지 과 1,2등 한건 절평때문에 순전히 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학기 복학생 대란으로 과 등수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저는 살아남아 1등을 지켰습니다. 등록금을 누구의 도움 없이 저 혼자 내고 있어서 사실 성적표 확인하기 전까지 걱정이 좀 많이 되었었는데 성적표 확인하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건축학과 박소현



추첨 영상을 확인하세요!

당첨되신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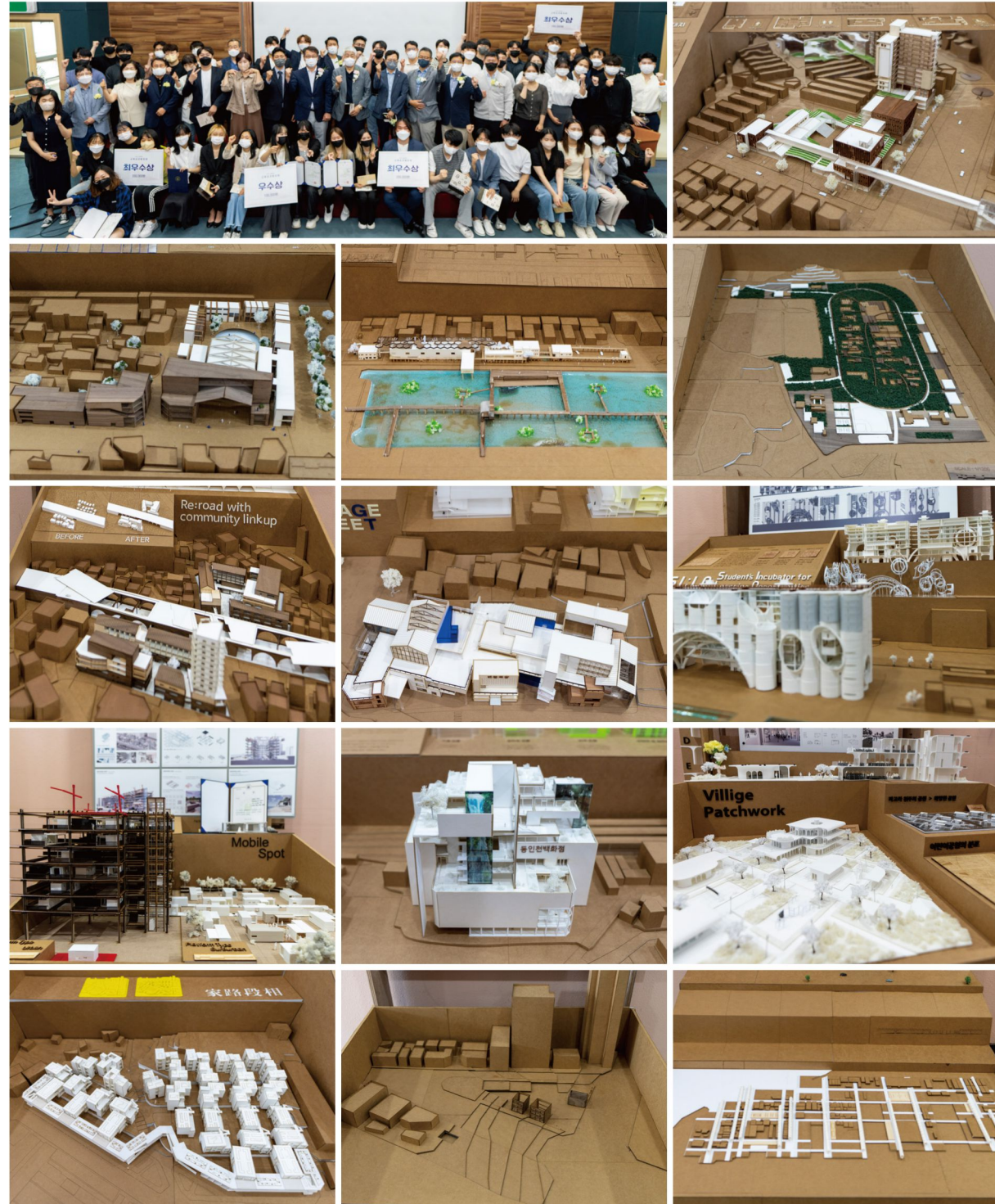
에어팟 3세대(1명)

공항공고등학교 모에원

건축학과 교육성과발표회

꿈의 집을 보여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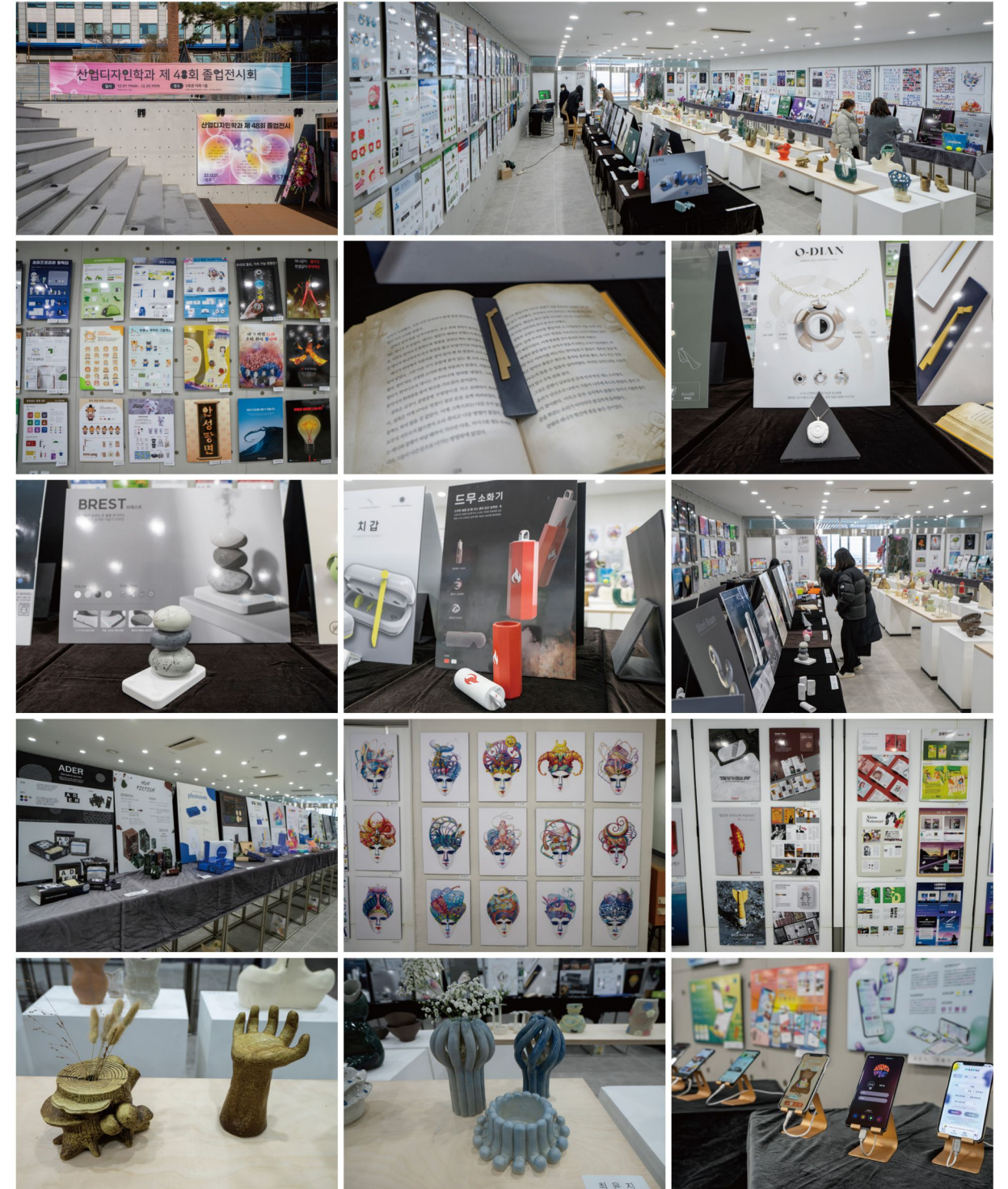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건축학과와 교육성과발표회가 있었어.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흘린 땀방울로 맺은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였지. 같이 사진으로 둘러보자!



제48회 산업디자인학과 교육성과전시회

아이디어를 세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2호관 지하광장에서 제48회 산업디자인학과 교육성과전시회가 열렸어. 그동안 열심히 갈고닦은 졸업생들의 작품, 대단하지?





한국공학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7일(수) 오전 11시에 한국공학대학교(총장 박건수, 이하 한국공학대)와 대회의실에서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우리 대학 서태범 총장, 한국공학대 박건수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교는 협약을 통해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시범사업으로 편입 과정을 운영하여 학습근로자가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개발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기계설계과 첨단스마트자동차과의 구조해석설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한국공학대의 스마트기계설계과의 인공지능개발, 기계제어설계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한국공학대 박건수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숙련 일학습병행 과정(P-TECH) 이수자들에게 대학과정 연계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기업 현장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우수 인재양성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겠다.”고 말했다.

서태범 총장은 “우리대학 P-TECH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경력개발 고도화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아리동 및 전공스터디룸 리뉴얼 재개관

우리 대학은 9월 15일(목) 오후 2시 <동아리동 및 전공스터디룸(학회룸) 리뉴얼 기념식>을 열었다. 우리 대학은 지난 6월부터 노후화되었던 50여 개의 동아리룸과 전공스터디룸(구 학회룸)의 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이번에 쾌적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재개관하였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전공스터디룸은 기존에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던 학회룸을 개선한 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전공스터디룸은 앞으로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새로운 학습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공스터디룸과 인접한 동아리룸은 코로나19로 모임 금지와 집합 제한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자주적인 비교과활동의 공간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노후화되었던 동아리 활동 공간을 개선하였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간으로 거듭난 동아리룸은 교과과정으로 충족되지 못했던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참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으로 바뀌었다.

서태범 총장은 재개관식 축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학교 공간을 확대 제공하기 위한 학생 복지 편의시설 TFT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인하공전 김효재 동문,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우리 대학 스마트기계설계과 제1회 졸업생 김효재 동문이 고용노동부 주최 ‘2022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학습근로자 부문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경진대회는, 일학습병행 참여기관 및 개인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하여 사업 참여주체의 업무역량 동방성장과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 시상식은 지난 9월 16일(금)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김효재 동문은 (주)에스제이테크에 재직하며 인하공전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며 경험한 훈련과정과 애로사항, 훈련성과, 진로계획에 대한 주제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효재 동문은 “일학습병행 사업은 중3때 산업인력공단의 설명회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 하며 불확실한 취업 장벽 및 등록금 등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독일의 마이스터 과정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도제과정에 지원하였고, 인하공전 P-TECH까지 마치게 되었다.”고 하며 “인하공전에서 P-TECH 과정을 거치며 우수학습근로자상, 학업우수상, 외부평가 합격 등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며, P-TECH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주)에스제이테크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광석 공동훈련센터장은 “그간의 교육성과 및 노하우를 더욱 체계



화하기 위해 과제중심학습(PBL)방식 등 진일보한 교육체계를 도입해 실무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학습근로자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 산업계 주도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을 함과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를 말한다.

우리 대학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사업은 현재 구조해석설계(스마트기계설계과)와 자동차차체도장(첨단스마트자동차과) 두 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1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인하공전, ‘(주)티스케이프’와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주)티스케이프(대표이사 정형원)와 27일(화) 11시에 본관 회의실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과 (주)티스케이프는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활동 활성화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 취업에 관한 협력 ▲교과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력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 분야 협력 ▲연구, 기술개발, 교육 목적에 따른 시설 공동활용에 관한 협력 ▲해양레저 시장의 업황, 기술 등의 정보 교환 및 교육지원 ▲ 기타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되는 산학협력에 관한 건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ITC-Go-Togeth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과 산업체가 결연을 통해 우리 대학은 현장중심교육을 실현하고 산업체는 우수한 인재를 조기 확보하고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등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태범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내건축과 조선 산업 분야 등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밀한 교류를 통해 대학의 인적 물



적 자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우수 인재 양성과 산업체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티스케이프는 지난 2012년 설립해 실내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디자인컨설팅, 인테리어 등 앞선 디자인과 차별화된 공간을 창조하고 있는 산업체이다. (주)티스케이프는 업무협약식 이후 우리 대학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자동차 규제 대응기술 과정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은 9월 30일(금) 경원재(인천 송도 소재)에서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38개 협약기업 임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규제와 대응기술 과정> 세미나를 진행했다.

우리 대학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센터장 김종우)에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미래자동차 산업전환을위해 다양한 훈련과정 중 하나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자동차공학과 김종우 교수가 2025년 이후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LEV IV, Euro 7 규제와 중국의 신에너지차(NEV)규제 동향을 발표했고, 한국GM 박용성 부장이 전기자동차 개발 동향, 르노코리아자동차 고기범 팀장, 김동인 팀장이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개발 동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우리 대학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2022년 8월부터 강화된 환경기준에 부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실무과정’을 비롯하여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요소기술, 자동차 부품생산 스마트 생산과정, 자동차규제와 대응기술, ESG와 경영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실시 중이다.

김종우 센터장은 “인하공전은 자동차 제작사 및 관련 산업체의 재직자 직무전환에 필요한 훈련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자동차 산



업전환과 인력고도화를 이루는데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되어 첫째 10억원, 2~5년차에 5억원씩 총 30억원 규모의 훈련 인프라 구축비와 별도 훈련비도 지원받는다.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캠페인 실시

우리 대학은 교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7일(월)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서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구성원 개개인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는 행사로, 현장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서약>을 하고 다회용 컵을 지참하면 무료 음료를 제공하였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현장 행사에서는 우리 대학 구성원 약 300여 명이 참가해 서약을 하고 음료를 제공받으며,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앞으로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개개인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장이어서 참가하게 됐다.”고 말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탄소중립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우리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이 글로벌 전문대학으로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과 일회용품을 줄여 나가는데 앞



장설 수 있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인식을 지역사회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 캠페인은 오는 31일(월)까지 실천 서약 및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계속된다.

인하공전, ‘2022 산학협력엑스포’ 참가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11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산학협력엑스포’에 참가하였다.

이번 엑스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동행하는 산학협력, 미래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란 주제로, ▲산학협력 플랫폼 ▲반도체분야 산학협력 우수기업관 ▲LINC3.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련 전시관으로 나뉘어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대학은 엑스포에서 전자공학과 한재범, 박소미 학생이 개발에 참여한 <i-CuBed>를 전시하였다. 이 제품은 LINC3.0사업의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로 제작된 총 10개 작품 중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i-CuBed>는 지능형 다분할 모션 베드로, 자세추론 기술을 기반으로 55개의 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침대이다.

제품 개발에 참여한 박소미 학생은 “환자들의 염증 발생을 줄여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느끼는 생활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간호 인력의 체력적 소모도 줄일 수 있어 환자와 간호 인력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라고 했다. 한재범 학생은 “재학 중 시제품 개발에 참여한 것만으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를 현장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시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값진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LINC3.0 사업을 통해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 표준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산업체 직무특강, 취업박람회, 창업캠프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산업체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뉴비즈니스모델링 프로젝트 경진대회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2일(수)에 ‘뉴비즈니스모델링 프로젝트 경진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뉴비즈니스모델링 프로젝트 경진대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주관으로, 산업체의 애로기술과제를 멘토 교수와 학생들이 해결점을 모색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대회이다. 참가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10월 26일(수)까지 과제물을 제출했으며 10월 27일(목) 1차 심사를 하여 가채점을 한 뒤 11월 2일(수) 당일 현장평가로 점수를 확정지어 발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경진대회의 평가 위원으로는 인하대학교 김치경 교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관리전문관 변양수 변리사가 참석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박기식 산학협력단장은 시상식에서 “대학과 기업 간의 교류가 확대되어 산학협력 활동 참여가 활성화된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상금 1,000,000원)



ISI(김승민, 박정우) 컴퓨터시스템과

▷금상(상금 500,000원)

RPM(박영준, 김민규)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은상(상금 300,000원)

전자도담(이정수, 허민석) 전자공학과

▷동상(상금 100,000원)

Electronics(김혜정, 권민기) 전자공학과

L3K2(이지수, 이민재) 실내건축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김원대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우리 대학 지구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김원대 교수가 국가 공간정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월 2일(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김 교수는 2000년 우리 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한국측량학회 부회장, 대한토목학회 전국대학위원장, 대한공간정보학회 상임이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회 부회장 등 공간정보 학문 및 기술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조달청 등의 정부기관과 서울시, 부산시, 국토정보공사 등의 기술자문위원으로 국가 공간정보 정책 발전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김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그 동안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열심히 활동했던 것을 인정받아 기



쁘고, 앞으로 공간정보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주목 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의 기본 정보가 되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UAV영상, 이동측량시스템(MMS),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하공전, 취업박람회 ‘Job Festival’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26일(수)부터 27일(목)까지 3호관 1층에서 취업박람회인 「2022 인하공업전문대학 Job Festival」을 개최했다. 이번 ‘Job Festival’은 채용관, 정보관, 컨설팅관, 모의면접관, 사진관, 이벤트관으로 총 18개의 기업과 6개의 정부기관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에게 최신 기업 정보 및 채용정보를 전달하고 참여 기업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명확한 진로 설정 및 취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며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행사 슬로건인 “챙길 건 챙기면서 잘 노는 내가 MZ”답게 행사 기간 동안 1,458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기업 정보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 특히 이번 취업박람회 기간 동안 현장 면접 진행을 통해 5명의 취업이 확정되기도 했다. 서태범 총장은 “「2022 인하공업전문대학 Job Festival」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업과의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 김장 나눔’ 지역봉사활동 실천

우리 대학은 11월 30일(수) 인하공전 3호관 교직원 식당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서태범 총장을 비롯한 학생과 교직원 40여 명이 함께 총 3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담근 김장 김치는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오병이어 무료급식소’에 전달했으며, 추가로 인하공전은 반찬을, 인하공전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리앤이 라마띠네’에서는 햄살 20KG 20포를 함께 기부했다. 서 총장은 “그동안 비대면 활동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지 못한 김장 행사를 여러 학생들이 참여해 더 뜻깊은 봉사활동이 되었다.”며 “인하공전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번 봉사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2023학년도 e-MU 과정 신입생 모집

우리 대학이 2023학년도 e-MU 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우리 대학은 e-MU 학위 과정으로 군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술전문병으로 입대하여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임관 예정자 포함)된 인원들과 일반 부사관들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e-MU 전문학사 학위과정과, e-MU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한 부사관의 전공분야 계속 교육으로 심화된 학습을 통하여 전공심화(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e-MU 전공심화(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인하공전, 2022년 교육성과전시회 개최

우리 대학은 11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2호관과 3호관에서 <2022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육성과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2일(화) 오전 10시 새로 단장한 2호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총장을 비롯한 내빈과 이번 교육성과전시회에 참여한 학생들 그리고 참관객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는 재정지원사업 우수 교육성과를 전시를 통한 교육성과 공유 및 다양한 기술 요소를 기업과 함께 개발하여 시장 개척과 제품을 제작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성과전시회에서는 연구성과확산팀에서 준비한 <산학협력 기술 개발 결과물> 20개, 신산업융합기술지원센터에서 <2D 및 3D 프린팅 우수성과물> 4개,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창의동아리 우수시제품> 6개,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융합캡스톤디자인 성과물> 12개 등 42개 시제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22일(화)과 23일(수) 오후에는 <산학협력 기술 개발 결과물>에 대한 성과발표회가 4호관 6층 세미나

e-MU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모집인원은 항공기계공학과(3년제) 96명, 조선기계공학과(2년제) 60명, 정보통신공학과(2년제) 120명이며, 전공심화(학사) 학위과정은 항공기계공학과 60명, 조선기계공학과(2년제) 25명, 정보통신공학과(2년제) 55명으로 총 416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전문학사 학위과정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증된 자 중, 군 특성화고 출신의 임기제 부사관(임관 예정자 포함) 및 일반 부사관이며, 전공심화(학사) 학위과정 지원 자격으로는 e-MU 전문 학사 학위과정 졸업자와 관련 분야 산업체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부사관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11월 28일(월)부터 12월 30일(금) 18시까지이며 접수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www.emu.ac.kr 또는 인하공전 홈페이지 www.inhatc.ac.kr를 참고하면 된다.



실에서 진행되었다. 박기식 산학협력단 단장은 “성과발표회를 통한 경험과 성과의 공유가 기업의 제품생산과 매출로, 학생들의 실전 역량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우리 학생들이 이번 과정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취업으로도 연계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기술과 다양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인하공업전문대학 대학발전기금 모금

인하공업전문대학은 1958년 설립 이후 최상의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전국 최고의 전문대학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다양성과 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사랑은 최고의 교육 경험과 최상의 교육 과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 발전기금 모금계좌(예금주 : 인하공업전문대학)
우리은행 : 1005-601-150619
문의 | 인하공업전문대학 평가홍보팀 Tel. 032)870-2451

카카오톡
입시상담



fly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조선기계공학과

항공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정보과
컴퓨터시스템과
건설환경공학과

공간정보빅데이터과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화학생명공학과

재료공학과
항공운항과
항공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비서학과
호텔경영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인하공업전문대학
INHA TECHNICAL COLLEGE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공업전문대학 TEL. (032) 870-2114